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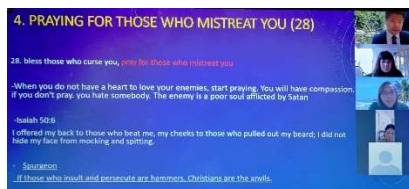
21-5, 2021년 6월 4일 밴쿠버 김은중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 6:12-13)

예수님께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12사도를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명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스펙이 너무 없고 평범 그자체였습니다. 만약 입사면접을 본다면 다 떨어지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부분 전하는 이야기에 보면 주님 나라를 위해 순교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가롯이라는 유다만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중 그는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했고 스스로 자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속 마음을 몰라서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1: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기준이라기 보다 주님의 사역에 통로로 잘 사용될수 있는 캐릭터를 가진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 순종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명과 능력과 콜링으로 하기 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찬 사람만이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의 12제자 처럼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2. 5월 한달간의 사역속에 나타난 감사 (교회, 캠퍼스, 언어연수, 양육, 가정)



지난 한달 동안 꾸준히 주안에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를 잘 이룰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7명 정도 드리는데 한국인이 5명 외국인이 2-3명 드립니다. 누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1시간 정도 줌으로 드립니다. 이제 5개월 드렸기에 품이 잡히고 영어로 전하는 설교준비나 SPEACHING도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NEEKY, ISABEL, ROSEY, PETRISHA, 필리핀 두 자매를 놓고 초청기도하고자 합니다.



THE WAY 공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8회 공부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JOE, CATHY, ELIZABETH가 참석했습니다.

신앙의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라는 네 영역에서 매주 토요일 밤 6시에 zoom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이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은 초신자와 LANGUAGE코스 지체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들 형준이가 토론토 대학 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덕분입니다.

늘 아들에게는 미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살에 캐나다에 함께 갔는데 벌써 만 18세가 되어 이제 9월이면 토론토로 가게 됩니다. 13년 밴쿠버 사역속에 아들도 사역에 열매 엮음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달 북미주 선교사 7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5월에도 변함없이 이루게 하셔서 감사 드립니다.

미국에 시카고, 뉴욕, 오하이오, LA, 그리고 밴쿠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매달 사역 나눔과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많게는 40년 역사에서 이제 개척한 3년 된 선교사님들입니다. 함께 이 사역을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유학생과 MULTICULTURAL PEOPLE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후마다 주안에 행복한 교회 식사 시간 및 운동시간으로 계속하여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상황속에서도 야외에서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가족단위로 식사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도 64%가 코비드 주사를 맞았기에 조금씩 주정부에서 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5명 허용하고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언어와 피부가 달라도

주안에서 가족이 되어 함께 모일 때 마다 기쁨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성경공부에 참석한 코트디브아르 출신 JOE형제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년 어학연수를 와서 놀스 밴쿠버에 관광을 하러 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배와 길공부를 참석중입니다. 이 형제는 컴퓨터에 대해 전공했고 앞으로 토론토에 가서 공부할 계획인데 코비드 상황 때문에 밴쿠버에서 머물러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밴쿠버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도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3. 6월달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주안에 행복한 교회 영어예배

다민족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캠퍼스나 지역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납니다. 맘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유학생과 1.5세를 섬기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THE WAY 공부 지속되도록

신앙의 초신자들이 4번에 걸친 공부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쌓고 믿음이 더 성장하여 교회속에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JOE와 CATHY가 끝까지 참석하도록)

3) 캠퍼스의 유학생전도

코비드 상황으로 캠퍼스 방문과 전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빨리 코비드가 해제 되도록 그럴지라도 지속적 전도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4) 이웃주민 전도

매일 집 주변과 산책길에서 전도합니다. 맘이 열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 참석하도록 기도바랍니다.

5) 지속적인 일대일 양육: 창세기 로마서 공부가 지속되도록 (서예화, 혜수, 동수 형제)

6) 자녀를 위한 기도: 형준이 토론토 가기전 학비대출과 생활비도 잘 마련되도록

7) 지속적 후원: 300만원의 후원목표가 잘 채워지도록,일과 사역에 균형을 잘 이룰수 있도록